

최지만, 시즌 초반 매서운 질주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이 최지만의 선전에 주목했다.

19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MLB.com은 전날 개막부터 이날까지 10경기 동안 일어난 30개 팀의 놀랄만한 이야기를 정리했다. 탭파베이 레이스 순서에선 연일 탭타를 휘두르는 최지만을 거론했다.



▲ 최지만 사진=limaohio.com

6위(1.340)을 기록할 만큼 화려한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다.

야구 통계사이트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최지만의 활약 비결을 알 수 있다. 올 시즌 최지만은 46.7% 타구를 스윙 스팟에 맞췄다. 배트 중심에 공을 맞히는 경우가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타구 질이 좋아졌고, 강한 타구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MLB.com은 "탭파베이의 공격은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최지만을 보자. 그는 (18일 경기 전까지) 타율 0.455, 출루율 0.613, 장타율 0.864이다. 베리본즈도 그런 시즌을 만든 적이 없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최지만은 2016년 데뷔 후 7년 만에 가장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시범경기의 부진(타율 0.111)이 기우인 듯 제 몫을 하는 중이다. 메이저리그 전체로 봤을 때도 18일 현재 타율 전체 6위(0.423), OPS

올 시즌 최지만 타구 속도는 평균 시속 97.5마일(약 157km)로 메이저리그 상위 1%에 속하며 지난해보다 6.3마일(10.1km)더 증가했다. 그 외에도 강타구 비율은 지난해 20% 이상 늘어난 66.7%이고, 잘 맞은 타구를 뜻하는 배럴타구 비율도 17.3% 오른 26.7%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지만이 시즌 초반의 타격감을 시즌 내내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 골퍼 PGA 도전 3배 늘어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성공을 거둔 이후 PGA에 도전하는 한국 선수가 늘었다. 올해는 역대 최고로 많은 한국 선수가 콘페리투어 웰리파잉 토너먼트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오는 9~11월 진행될 예정인 콘페리투어 웰리파잉 토너먼트에는 김주형(20)과 김민규(21), 김한별(26), 함정우(28), 황중곤(30), 배용준(22) 등 15명이 넘는 한국 선수들이 일찌감치 출전을 결정했다.

지난해 김성현(24)을 포함해 한국 선수 5명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콘페리투어 도전을 검토 중인 선수까지 포함하면 25명에 달한다.

한국 선수들이 콘페리투어에 도전하는 이유는 꿈의 무대인 PGA 투어 출전권을 따낼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PGA 투어는 2012년을 마지막으로 정규투어에 직행하는 길이었던 웰리파잉 토너먼트를 폐지했다.

콘페리투어는 2부 투어이지만 출전권을 따내는 것이 쉽지 않다. 1차 웰리파잉 토너먼트를 포함해 2차와 최종전까지 통과해야 콘페리투어 정식 멤버가 된다.

한국 선수들이 PGA 투어 도전에 나서는 이유는 PGA 투어의 유명 선수들과 우승을 놓고 경쟁하고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PGA 2부 투어인 콘페리투어를 평정하고 정규투어에 데뷔한 임성재는 첫해부터 맹활약을 펼쳤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그는 2승을 포함해 3시즌 연속 투어 챔피언십에 출전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수가 됐다.

이현중 NBA 공식 도전 신인 드래프트 지원



▲ 이현중 사진=shutterstock

이현중(22, 데이비슨대)이 공식적으로 미국프로농구 NBA에 도전한다.

21일 'OSEN'에 따르면 2022년 NBA 신인선수 얼리 드래프트 신청이 오는 24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대학 잔류와 프로 진출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던 이현중은 데이비슨대에 NBA 드래프트 참가의사를 전달했다.

데이비슨대학의 맥킬롭 감독은 지난 3월 이 대학 학보사와의 인터뷰에서 "이현중이 4학년까지 학교에 남는다면 미국프로농구 진출 유망주로서 부담뿐만 아니라 NBA 스카우트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현중은 데이비슨에서 3년 동안 'NCAA에서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얼굴'로 여겨지며 미국인은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부담을 받았다. NBA 선수로 뛰는 것보다 더 큰 압박감을 느꼈다."며 이현중이 올해 신인 지명에 도전하는 것이 낫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NBA 드래프트는 오는 6월 24일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진행된다. 드래프트 참가선수 명단이 확정되면 선수들의 신체사이즈와 운동능력을 평가하는 '드래프트 컴바인'이 진행된다. NBA 구단들이 관심 있는 선수를 따로 불러 테스트하는 '워크아웃'도 중요하다. 이현중은 데이비슨대 훈련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에이전시가 제공하는 훈련시설에서 다른 유망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NBA 입단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현중의 아버지(이윤환)는 삼성전자 농구단 선수 출신의 농구 지도자이며 어머니는 LA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성정아이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